보일 듯 말 듯 철선 寫佛에 담긴 밀교

청명 스님 사불과 사경 展
‘금선불향, 금빛 선으로 부처님네 향기를 올립니다’
소소갤러리 3월 7일부터 19일까지


청명 스님

다라니, 십팔비관음 등 20여 점 선봬
선정의 호흡으로 그려내는 철선사불
10여 년 전부터 사불과 수행을 시작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국내외에서 다양한 수행법으로 수행 정진하며 밀교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청명 스님이 수행의 방편으로 그려온 사경(寫經)과 사불(寫佛)을 모아 개인전을 연다.

청명 스님은 3월 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중앙동 소소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금선불향, 금빛 선으로 부처님네 향기를 올립니다’ 를 개최한다.

바즈라명상센터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에서 청명 스님은 ‘다리니’, ‘십팔비관음’ 등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작품은 철선사불(鐵線寫佛)이다. ‘철선사불’ 은 선정의 호흡이 아니면 그릴 수 없는 작품이다. 철사처럼 선 자체가 가늘다고 해서 ‘철선(鐵線)’ 이라고 하는데, ‘철선’ 은 선묘의 두께가 일정하고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이 그렸다고 하기엔 그 정교함이 극히 세밀하고 가늘어서 마치 투명하게 보일 정도이다. 철선은 고려시대 최고의 불화로 불리는 수월관음을 그릴 때 사용되었던 기법이다. 수월관음이 입고 있는 비단 사라(紗羅)가 투명하게 비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수행으로 마음이 깊어져 호흡이 미세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가능한 작업이다.

‘사비관음(四臂觀音)’ 은 철선으로 표현해 빛으로 비춰야만 형상을 미묘하게 드러낸다. 사비관음은 네 개의 팔을 가진 관음보살이며 티베트에서 볼 수 있는 불화이다.

청명 스님은 사비관음을 그리는 동안 시력을 잃을 뻔 했다. 스님은 “사비관음을 완성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단 한 가닥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며 “그렇게 작품에 몰입하면서 생긴 심각한 안압으로 인해 시력을 잃을 위기까지 경험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과 몸 상태를 잘 관찰해서 오롯이 집중하되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는 것도 큰 공부임을 때달았다”고 전했다.


청명 스님 作, 십팔비관음(준제보살).

이외 스님의 작품은 한국 사찰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신중탱화의 주존 예적금강(穢跡金剛)을 단독으로 표현한 작품, 준제보살로 호칭되는 ‘십팔비관음(十八臂觀音)’ 도 만날 수 있다. 또 전시에서 백의관세음보살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함께 새긴 작품과 다라니의 제목을 한문으로 적고 내용을 산스크리트어로 새긴 사경 · 사불 합작품도 선보였다. 관세음보살 사십이수 진언을 비롯해 티베트불교의 여덟 가지 길상도 각각 선보인다.

청명 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사불수행을 시작했다. 진언수행에 더 깊이 몰입하기 위해 일본, 중국, 티베트 사경 교본을 구해 산스크리트어 만트라(진언)를 따라 쓰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다. 자연스럽게 사경에서 사불로 확장됐고 수행을 거듭할수록 집중력이 깊어지면서 밀교의 가르침도 선명하게 다가왔다.

청명 스님은 “만트라를 보고 따라 쓰고 새기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밀교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한국 불교 속에 녹아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한국 불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밀교가 누구에게나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시의 취지를 전했다.

개원 1주년을 맞는 바즈라명상센터는 청명 스님이 밀교의 대중 포교를 위해 지난 2021년 4월30일 개원한 현대식 수행공간으로 건물 전체가 문화와 수행, 명상을 위한 공간이다. 바즈라(vajra)는 산스크리트어로 ‘금강’ 을 뜻한다. 명상센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중에게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이다. 대승불교의 금강승(金剛乘)을 가르치는 밀교수행 공간이며 금강승 불교는 보리심과 보살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티베트와 히말라야 지역에서 크게 꽃피운 불교이다.

바즈라명상센터에서는 스님이 지도하는 밀교 수행법을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다. 젊은 세대를 위해 인스타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바즈라명상센터 2층에 위치한 소소갤러리에서 열린다. 건물 1층은 찻집이고 3층에는 바즈라명상센터가 있다.

청명 스님은 한국의 제방 선원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수행법을 접하며 스스로 가장 적합한 수행법을 찾아 정진해왔다. 미얀마 마하시선원, 중국 구화산에서도 정진했으며, 정토염불에도 매진했다. 그러던 중 홍콩 원융불학원과 인연이 닿아 일본 고야산에서 전통을 이어온 진언종의 밀교수행을 접했다. 고야산 홍콩 분원 묘종사에서 관제 아사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4년여 전부터 밀교 수행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스님은 사단법인 미소원과 오랜 인연으로 현재 미소원 청년회 지도법사도 맡고 있다. 스님은 국민예술협회 사경부문 초대작가로도 등재돼 있다.

어장 동희 스님 범패 음반 발매



범음 13장 등 총 18장 CD로 출시
범음13, 화청2, 작법2, 대령 · 관욕1
범패음악 집대성 음반 수록은 처음
송암 문하서 65년간 범음범패 계승
종교적 · 음악적으로 모두 가치 있어

어장(魚丈) 동희 스님<사진>이 불교 고유의 성악곡, 범패를 18장의 CD에 담아 출시했다. 분야는 범음 13장, 화청 2장, 작법 2장, 대령 · 관욕 1장으로 구성했다.

9세기 무렵 신라시대부터 전해오기 시작한 범패는 불교의식을 보다 장엄하게 하고, 심신을 심화시켜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려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의식음악이다.

장단과 화성이 없는 단성선율로 이루어진 범패는 서양의 그레고리안 찬트와 같은 성격의 의식음악으로, 특히 범패 중 영산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종교음악의 가치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민속음악이기도 하다.

범패의 세계는 무척 넓지만 이번 음반 작업에서는 대중들과 나누어야 할 곡들을 추려 ‘범음’ 13장 음반에 담았으며, 불교 무용 세계에 꼭 필요한 곡들은 ‘작법’ 음반에, 불경 속의 교훈적 이야기를 담은 곡들은 ‘화청’ 음반에 각각 수록했다. 그리고 스님들의 의식에 자주 사용되는 곡들은 ‘대령 · 관욕’ 으로 따로 담았다.

가곡 · 판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성악곡의 하나로 꼽히는 범패 음악이 이처럼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어 음반에 수록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며, 종교적으로는 물론 음악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동희 스님의 범패음악 CD

동희 스님은 1945년 해방둥이로 태어나 한국전쟁 중이던 여섯 살 때 서울 청량사에서 조계종 비구니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13세 때 범패로 명성이 높았던 어장(漁丈) 송암 스님 문하에서 입문하여 범패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65년간 변함없이 범음범패를 계승하면서 그 맥을 잇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교육조교 및 조계종 염불종장’ 인 동희 스님은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범패승계보에 올랐으며, 불교 의식의 무대 공연화를 시도하여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30세에 옥천범음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동국대 · 서울대 · 한국예술종합학교 · 각 승가대학교와 국립국악원 등에서 범음과 범패를 가르쳐왔으며, 현재는 동희범음회의 대표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수륙재’ 등 국가의 주요 불교 행사를 집전하고 있으며, 1980년 ‘베를린음악제’ 초청 영산재 공연 이후 로마 교황청 초청 공연, 뉴욕 사운드스페이스 공연, 워싱턴 케네디센터 공연, 도쿄 국립극장 공연 등 해외공연을 통해서도 소중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스님의 범패는 영혼을 다스리는 소리이며, 스님의 춤은 마음을 다스리는 몸짓’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료 문의 : A&A (02)583-4300, 청량사 (02)966-1505) 박재완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 **E-mail** : ds7788@hanmaum.org
-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 **전화** 031)470-3276, 3277
-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5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4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 (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 (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12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2. 3. 19.(토) 13:30~17:4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 **좌장** : 안성두(서울대)
  - □ 제1주제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
    발표 : 법장 스님(해인사승가대학)
    논평 : 1. 이자랑(동국대) 2. 고승학(금강대)
  - □ 제2주제 (대행선의 사상적 체계와 그 의의)
    발표 : 김재권(능인대학원대학)
    논평 : 1. 이상호(서강대) 2. 이석환(동국대)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